

한국의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

이 나 미*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위기를 맞이한 보수세력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와 과격한 행동으로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다. 이들 보수단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화되는 조짐이 있다. 몇몇 거대 보수단체와 보수적 인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즉 보수적 시민단체는 극우단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이들과 달리 변화된 현실에 반발하기보다는 이에 적응변신하면서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이념은 표현방식과 과격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강화, 이라크 파병 환영, 북한 인권문제 강조, 북핵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고교 평준화 반대, 기업 옹호,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이 극우단체와 다르며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선 시대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한다. 즉 국제적인 탈냉전 시기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민심이 변화했으므로 진보를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강정, 보수혁신, 계층노사갈등을 극복해야 하며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호주제 폐지에 동참하기도 한다. 노동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미약하지만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처럼 친일, 반공을 무조건 두둔하지 않는다는 태도, 현 체제,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극우단체처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념은 민족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이나 다소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이들은 나아가야 할 뚜렷한 이념적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들 보수단체들은 사회내 보수세력이 다시 강해지면 언제든 극우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민주화와 개혁을 통해 이들 단체들이 계속해서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보수, 극우, 수구, 보수주의, 보수단체, 극우단체

* 고려대 강사

1. 머리말

보수주의 이념이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그전에는 별로 주장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로서¹⁾ 보수적 집단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확실하게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었으므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그들에게도 위기는 왔으며 자신들을 옹호할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보수주의 담론이 등장했으며 제한적이거나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해 본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그 담론이 활짝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보수주의 담론의 등장은 보수 세력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세력은 정부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민주화와 개방화에 의해 발생한 진보적 NGO들에게도 대항하기 위해 - 또한 역설적이게도 이들을 모방하여 - 보수적 시민단체를 조직하였다.³⁾ 최근 이들은 대규

1) 서병훈. 1999. “한국 보수주의의 성격과 발전 방향.”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p.54.

2) 이는 서구의 보수주의 철학의 등장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서구에서도 귀족정치가 특권을 비판받지 않고 있던 시절에는 그들의 특권이 정당화될 필요가 없었다. 주요한 보수주의의 철학논문이 나타난 것은 프랑스 혁명과 그 평등주의적 합리주의가 귀족적 전통주의를 위협하기 시작한 후가 된다. Peter Viereck, 김태수 역. 1981.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대창문화사, p.29.

3) 이는 본 논문에 대한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또한 이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화된 제3세계 사회의 공통된 양상이라고 지적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논문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모 시위를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이다. 안응모 8.15 국민대회 집행위원장은 “DJ정권 전까지는 투쟁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언제부턴가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마저 북한관련 내용들이 사라질 만큼 우리 젊은 층은 북한에 대해 무지하다.”(신동아 2003. 10. 305-307)고 하여 김대중 정부와 사회의 친북적 경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른바 청년 우익의 경우도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인터넷에서 주로 햇볕정책을 비난하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특히 북핵문제 대두를 계기로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 보수단체가 창립되었다(신동아 2003. 10).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도 한 계기가 되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보수단체를 오프라인 무대로 집결시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반발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하였다. 안티조선반대운동과 언론사세무조사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적극 지지하였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북핵과 서교장 자살 사건 등을 호재로 삼아 세불리기에 나섰다(한겨레21 2003. 5. 22). 서교장 자살사건에 특히 반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반북과 더불어 반전교조가 중요한 슬로건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좌경화시켜 보수주의에 반하는 사회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북’과 ‘반전교조’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교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보수적인 젊은 세대 양성을 위해 “학과 성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김상철 변호사, 박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등 주로 보수적 인사들이 강의를 하는 ‘21세기 청년 아카데미’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모두 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한겨레 2004. 10. 6).

보수 단체들은 2003년도 3월 1일, 6월 21일, 8월 15일에 세 차례 큰 집회를 열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러한 보수단체의 집단 행동은 1970년대 관제테모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6.25를 기념하는 대회에서는 1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인공기를 태우고 가스총을 반대자에게 발사하는 과격성을 보이기도 했다. 2004년 3.1절 국민대회에서도 약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등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는 10월 2일 한국 기독교를 주제로 다룬 KBS에 반대하기 위해 극우단체와 더불어 전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극우(또는 수구)단체와 보수단체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몇몇 거대 보수단체와 보수적 인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즉 보수적 시민단체는 극우단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이들과 달리 변화된 현실에 반발하기보다는 이에 적응·변신하면서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수와 수구의 정의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는 대체로 우리사회에 수구만 있었지 보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⁴⁾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하기 앞서 보수주의

4) “단지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더 정확하게는 수구적 세력만 존재해왔다는 것이 그간 흔히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홍덕률, 『황

와 수구주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수적 단체와 수구적 단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선 보수주의는 하버(William R. Harbour)에 의하면⁵⁾ 첫째는 신(神)과 질서잡힌 우주를 강조한다. 이것이 관습과 전통의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유토피아니즘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인민의 권력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도 불신한다.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엘리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험주의를 존중하며 지방주의와 분권화를 지향한다. 앞으로 살펴볼 한국의 보수단체와 수구단체는 이러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 중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는 크케, 버크(Edmund Burke, 1729-1797)식 발전적 보수주의와 메이스트르(Josep De Maistre, 1753-1821)식 반동적 보수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Viereck 14-16) 대체로 보수는 전자, 수구는 후자로 볼 수 있겠다. 버크는 변화를 어느 정도 용인하여 융통성이 있고 당시 입헌주의자요, 의회주의자였다. 반면 메이스트르는 반동적이고 군주제와 권위주의를 옹호했다. 무엇보다도 버크는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과 타협했다는 점에 메이스트르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주의의 힘은 그러한 '타협'과 '변화를 용인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무로 메이스트르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주의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 수구를 고집한다면 우리

해문화」.

5) 김용민은 하버의 정의를 10개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서는 좀더 축약하였다(김용민 1999: 16-18 참조).

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어차피 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므로.⁶⁾ 그러나 버크식의 보수주의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수구보다는 보수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수구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로도 설명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실리를 중시하고 근본주의는 원리(원칙)를 중시한다. 보수주의는 안전을 중시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른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변화를 용인하지 않으므로 과격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보수주의자 또는 보수단체가 앞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과격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근본주의자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보수주의자만 있다고 판단된다.⁷⁾ 우리나라 극우단체들이 진정한 근본주의자인가 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다. 근본주의는 본래 기독교근본주의를 줄여 말한 것으로, 기독교근본주의는 기독교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과학과 공존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완강한 기독교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은 부시의 반이슬람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부추겼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신앙이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불허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이슬람근본주의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슬람근본주의는 서구와 서구의 자유주의 수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이슬람 원리와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이슬람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개혁을 자체적으로 시도했으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근본주의

6) 지난 총선은 그러한 사실을 또 한번 증명해주었다.

7) 대표적인 경우가 이문열이라고 생각된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보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단지 머피의 법칙이 들어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진보세력이 이겼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 그는 이것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⁸⁾ 또한 이를 시장과 자본주의에 적용하면 시장근본주의 역시 시장적 질서를 강하게 표방하고 어떠한 개혁도 반대하는 근본주의적이고 수구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근본주의의 주된 특징은 변화나 타협을 반대하고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 적용해 볼 때 서구와 일본에 반대하는 위정척사파(당시 수구파로 불림)를 유교근본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의 경우 보수주의자에 가깝다. 이완용의 경우 본래 위정척사파로서 갑신정변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친러, 친미, 친일로 변신하면서 당시 가장 강한 세력에 편승하여 살아남는 묘기를 보여준다.⁹⁾ 보수주의의 주요 내용인 실리주의만이 그의 원칙이었다. 따라서 보수주의야말로 자신의 실리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근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과격한 행동이나 테러가 아닌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고 보수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군부 쿠데타에 협력하고 독일 나찌에 협력한다. 근본주의 세력은 그 성격상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적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볼 때 보수와 수구의 분류 기준은 대세로 굳어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안정된 시기에는 보통 수구와 보수가 일치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보수와 수구가 갈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8) 물론 강대국의 근본주의와 약소국의 근본주의는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는 빼앗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9) 이는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김종필의 생존능력에도 나타난다. 그는 한일회담 당시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했었다.

눈에 보인 것은 2003년 여름 6.25 대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일부 보수단체들이 극우단체의 극단적 행위에 반대하여 불참하기 시작했다.¹⁰⁾

3. 보수 단체 현황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보수단체와 극우단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명분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우선 과격한 언동과 선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극우 단체들을 보자.¹¹⁾

1) 극우 단체

보수 단체의 시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2003년 6.25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단체들을 극우(수구)단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2003년 8.15 대회의 참가 인사 및 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때 강영훈·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기승 헌법회장, 박홍 전 서강대총장,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이동복 명지대 초빙교수, 채명신 베트남참전정우 기념사업회장,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2003년 3.1절 및 6.25 대회는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가 주된 이슈였다. 그

10) 수구단체는 언론에 의해 주로 극우단체로 불리우기 때문에 이후 극우단체로 명명한다.

11) 이하 소개되는 극우-보수 단체들은 자칭, 타칭 보수단체들이며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은 단체들이다. 이밖에 보수단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상호(2004) 참조.

러나 8.15 대회 때는 ‘국가반역심판’이 추가되었다. 즉 ‘DJ정권기에 햇볕정책 등을 통해 다 죽어가던 북한정권을 살려주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해온 친북좌경세력에 대한 척결’(신동아 2003.10: 305)이 그것으로, 이전에 비해 한결 주장이 극우적으로 또한 과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크게 정·관계 원로단체, 전역 군인단체, 실향민단체, 청년·네티즌 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1) 정·관계 원로 단체

정·관계 원로인사들은 과거 반공을 표방한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을 쥐고 있다가 시대가 변화하자 그 보수성이 수구적 색채를 띠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강하고 일관되게 과거의 슬로건을 외치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헌변. 회장 정기승):

1988년 4월에 창립되었다. 구성원은 전직 국회의원, 검찰, 안기부장, 시장, 정관계 출신 변호사들로서 주로 보수층을 대변해온 원로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헌변은 온건보수를 지향할 것 같으나 각종 극우 연합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철승):

1994년 7월 16일에 창립되었다. 자유민주총연맹, 건국청년협의회, 대한반공청년회,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등 33개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보수연합체로서 결성 계기는 김일성 조문 발언과 한총련 분향소 설치 반대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 주로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성명 등을 발표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다. 이철승은 2003년 8.15 대회에서도 공동대회장을 맡는 등 일관된 극우적 입장을 갖고 있다.

자유시민연대(www.freectzn.org; 공동의장 정기승 변호사, 류기남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

2000년 11월에 창립되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한민국건국회, 헌법, 대한참전단체연합회, 전쟁방지국민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청년연합회, 실향민중양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50여개 단체 5000명의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임광규 변호사(헌법 부회장)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매월 자유시민저널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2001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라는 과격한 문구를 사용해 색깔논쟁을 일으키고 전교조와 충돌한 바 있다. 8.15 대회 때 행사세부계획을 종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유수호국민운동(상임의장 장경순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2002년 4월 26일에 김대중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발족되었다. 군 및 정계 원로, 보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 150여명이 중심이 되고 있다.

(2) 전역 군인단체

군대는 기본적으로 질서, 안보, 규율, 충성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특히 어떤 지도자 또는 집단적 분위기가 합리적 사고보다 감정과 애국심에 호소할 경우 군인들은 자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애국주의로 정당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군부 세력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전역 군인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강한 집단적 유대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역 군인단체들은 과격한 발언과 행동도 서슴치 않는데 그 대표적 단체는 아래와 같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www.bigcolonel.org; 회장 서정갑):

1995년 4월 창립되었고 현재 7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조갑제와 더불어 극우·보수주의자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군사평론가 지만원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 대표 역시 대령출신으로 소속 회원이다. 서정갑은 조갑제와도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이들 대령 연합회는 소속회원들이 별을 못단 군인들이라 한풀이 성격도 질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들은 ‘보수를 가장한 회색분자인 자유총연맹을 앞으로 보수진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신동아 2003.10)이라는 발언을 통해 온건보수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며 명계남 등 조갑제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가스충을 발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 연합회, 육사3·7·8·9·20기 총동창회, 갑종 157기·164기 동기회, 공군전우중앙회, 대한민국해군동지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전역 군인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독립신문, 북한민주화협의회, 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의 극우파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한겨레 2004. 3. 31). 이들은 탄핵지지집회를 주도하였다. 2004년 3월 25일 “노무현씨가 국회까지 장악하면 친북세력과 손잡고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을 수용해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반역세력을 검경이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12) “(우리는)‘별’을 못달아 한풀이하는 집단이 아니다. 대령 계급은 군의 엘리트 간부이기 때문에 예비역 대령들이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신동아 2003.10, 303)이라는 발언에서 오히려 그들의 한을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군뿐... 우리 군은 헌법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후보루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아 놓았으므로, 국군이 나서기 전에 반역세력은 자숙하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한겨레 2004. 3. 31)고 하여 군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¹³⁾

(3) 실향민 단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갈등은 영·호남간 갈등이고 보수성을 대표하는 지역은 영남인 듯하나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매우 완고한 보수적 지역민들은 실향민 즉 분단과 더불어 남하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주로 북한의 급진적 토지개혁의 결과 축출된 지주와 부농들이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반공극우세력을 형성하게 된다(최장집 2002: 47). 또한 영·호남은 이미 해당 지역이 그 거점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없지만, 실향민들은 거점이 없으므로 모일 수 있는 결사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실향민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은 최장집 교수의 한국전쟁관과 관련, 국방부에 여순반란사건,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이 공산분자의 폭동이라는 국방부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전 내무부장관을 지낸 안응모 황해도 중앙도민회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세력의 결집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을 그동안 죽 지켜봐온 사람 중 하나다...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 뿐이다. 진보 진영은 이같은 가치관의 정립이 안돼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무엇인가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각 때문에 보수진

13) 이밖에 극우과라 할 수 있는 조갑제, 김용서 역시 군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

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체제의 나쁜 점을 인정하고 조금씩 고쳐왔으므로 절대 '수구'가 아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도 그대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보이고, 친북적인 저쪽(진보진영)이 보수이자 수구다.”(신동아 2003.10: 304)라고 답변하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칭 보수당이다. 그들은 ‘입으로만 보수’일 뿐 ‘행동하는 보수’가 아니다.”(신동아 2003.10: 305)라고 답변하여 온건보수와는 분명히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신동아 2003. 10: 305).¹⁴⁾

(4) 청년·네티즌 단체

청년 극우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들 단체의 한 회원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화 운동 세력과 친북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져 취업난이 계속되면 젊은 세대의 보수화는 더욱 심화될 것”(한겨레21 2003. 5. 22)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세계대전후 실업자들의 자기절망이 나찌즘 지지로 이어진 것을 연상시킨다. 최근 몇몇 과격한 젊은 사람들이 뜨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들 수 있고, 청년은 아니지만 어느 집회이건 빠지지 않는 행동대장으로 북핵저지시민연대(www.cceo.co.kr) 박찬성 대표를 들 수 있다.¹⁵⁾ 이들은 거의 ‘직업적’극우파로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시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청년 극우파들은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를 결성하였는데 참여 단체로는,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청년우파연대 등이 있고 이들 청년보수단체들은 진보

14)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정책 이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15) 또한 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한기총 가맹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거의 모든 집회 행사기획을 담당하였으며 인공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도 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적 인터넷 매체에 대항하는 보수매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독립신문은 대표적인 극우적 인터넷 신문으로 신혜식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안티DJ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2년 7월에 인터넷독립신문을 창간하였는데 그 이유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진보적 인터넷 매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신혜식은 인터뷰에서 “우리사회의 최고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인 남쪽의 사이비 지식인들은 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의 세력이지요”라고 말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 웃기는 **들이예요. 나이슨(NEIS)지 내이슨지 사소한 것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서 왜 북한인권에는 침묵합니까. 그게 민족공조입니까. 그건 김정일 공조죠”(한겨레21 2003. 5. 22)라고 주장하였다.

청년조갑제를 자임하는 그를 월간조선은 ‘젊은 영웅’(2003년 4월호)이라고 부르는 등 치켜세우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독립신문은 하루 방문객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네티즌이 자주 찾았던 사이트이다. 작년에는 모금도 잘 되어 2003년 4월 한달 동안 3200만원 모금되었다고 한다(한겨레21 2003. 5. 22). 물론 이는 2003년 3.1절 대회 이후에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www.fnkorea.org; 대표 이준호):

이들은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조갑제, 김동길, 지만원, 이철승의 극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애국지사들의 경험을 계승하는 것은 전통을 잘 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과 사상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철폐반대, 한총연합

법화 반대, 전교조 해체를 주장한다(한겨레21 2003. 5. 22).

시민과함께하는대학생연대(www.withcitizen.dawa.to 이하 시대연대;
대표 한정민(연세대)):

2001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뒤에 결성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주고발을 취하하라. 정부는 유실된 공적자금의 행방을 추적해 불법제공과 사용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라. 피주기식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립하라.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좌익사범을 체포하라. 무의미한 김정일 답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공안보태세를 강화하라.”는 것이다(한겨레21 2003. 5. 22). 이들의 결의문을 보면, “김정일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사이비 지식인들이 생겨나 김정일의 정치하수인이 되어 반 대한민국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들 친북좌익 하수집단을 척결하고 일소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청소년을 반 대한민국으로 물들이는 최대의 오염주체는 전교조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전교조를 교단에서 축출하자”는 것이다(한겨레21 2003. 5. 22).

청년우파연대(cafe.daum.net/blueff):

2002년 촛불집회의 반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체설립의 배경이 되었다. 카페회원은 15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요구사항은 앞서 소개한 단체와 동일하며 특히 청년실업해소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는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의 ‘대북 라디오 보내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2) 보수 단체

2003년 3월 1일에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에서 경찰추산 7만명이 참가했으며, 그해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에는 11만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8월 15일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에는 1만 5천명이 참가하였다(신동아 2003. 10).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주된 참가자인 교회신도들이 여름철이라 수련회를 가거나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극우적인 행위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는 보수 집단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한다. 한기총은 8.15 대회 때 인공기 소각 등 극우단체의 과격한 포퍼먼스 등에 대한 반감과 내부 사정으로 빠졌다고 한다.¹⁶⁾ 또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빠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제향군인회(회장 이상훈) 역시 8.15 대회 때는 내부사정상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빠졌다.¹⁷⁾(신동아 2003. 10) 과격한 극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는 그 성격상 극우와 다른 단체,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보수단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극우단체에 의해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는 ‘어용단체’다(한겨레21. 9. 15). 그러나 이들 집단은 기회주의적으로, 언제든지 사회 내의 보수세력이 강해지면 그 쪽에 갈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 대표적인 보수 단체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전 관변단체

대표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들 수 있

16) 물론 2004년 올해 KBS 방송에 항의한 대규모 집회를 극우단체와 함께 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회적인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17) 단 서울시재향군인회만 참석했다.

다. 이들 단체가 온건 보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에 협조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법률적·태생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극우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⁸⁾

한국자유총연맹의 역사는 1954년 당시 이승만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여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조직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의 한국 지부는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었는데 89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한국반공연맹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국자유총연맹이 포괄승계하면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태는 광복 이후 변성했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태극단동지회,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신헌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등이 다.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외곽조직으로 지목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군·구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다. 통·리 단위에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에 23만 명, 전직 지도자까지 합하면 2백3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 금고, 문고, 직장새마을협의회까지 합하면 전국적인 거대 조직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설립되어 독재에 기여하는 관변보수단체로 80년대에는 조직 상층부가 비리를 저질러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2) 학계·지식인 단체

보수층을 자임하는 원로학자와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단체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www.cubs-korea.org Citizens United for Better

18)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법령이 남아 있어 지원을 정부가 하고, 또한 “존립 자체가 국가 시책과 맞물려 있는 단체는 운영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을 것”(경남도민일보 2003. 8. 11)이라고 행정자치부관계자가 발언했는데 이는 이들 단체들이 국가의 시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Society)'가 2002년 3월 12일에 창립되었다. 이는 2001년 4월 탄생한 40-50대 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모임인 '비전@한국'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운동권출신들과 명망가 중심의 기존 시민운동이, 침묵하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중심의 시민단체를 표방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 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기구'로 소개되고 있다.

공동대표는, 김성기(법무법인 CHL 대표변호사) 박효중(서울대 정치학 교수) 김태련(한국어린이육영회 회장) 송복(연세대 사회학 명예교수) 봉두완(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송병락(서울대 경제학 교수) 유재천(한림대 언론정보학 교수) 유세희(한양대 부총장)이다.

이 기구가 추구하는 이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실사구시 정신을 앞세워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존 시민단체와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김석준 교수는 “참여연대가 주도해온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브레이크 기능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엔진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한다(주간조선 2002. 3. 14: 14-15).

(3) 기독교 단체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한기총(회장: 길자연 목사)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보수 집회에 자발적 참여자가 있기는 하나 한기총 없는 대규

모 집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대규모 보수 집회는 한기총의 2002년 1월 평화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후 2003년 3.1절 국민대회로 연결되었다. 2002년 1월 11일과 1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가 보수단체 인사들의 이목을 끌면서 국민대회를 한기총과 함께 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3.1절에는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져 집회장소를 달리했다. 한기총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10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금식기도회’를 가졌다. 그러나 6.25 대회 때에는 보수단체와 한기총이 긴밀히 공조하여 함께 개최했다(신동아 2003. 10). 이후, KBS에 항의하는 집회에서도 한기총은 극우단체와 공조하여 1부는 한기총이, 2부는 극우단체가 주도하였다.

한기총이 이렇듯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 대다수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 2일 방영된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내용에 따르면 상장사 기업 임원의 43%, 국회의원 중 120명이 기독교인이다. 한국은 세계2위 선교대국으로 미국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총 신자수는 1200만명이고, 규모로 볼 때 세계 1위(80만명), 2위의 교회가 모두 한국의 교회이다. 이들은 극우에서 보수로 바뀌는 듯하다가 최근 KBS 문제와 사립학교 법 문제로 극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청년 단체

청년보수단체에는 극우적인 단체 뿐 아니라 온건보수 단체도 생겨났는데 보수주의학생연대(이하 보학연. 대표 박세완 고려대)가 그것이다. 2002년 8월에 결성된 이 단체는 “우리는 좌파와 달리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기능주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한겨레

21 2003. 5. 22)고 주장하였다. 다른 청년우파와 달리 국가보안법철폐, 전교조,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한겨레21 2003. 5. 22).

또한 미래한국연구회(cafe.daum.net/futurekorealab)가 2003년 2월에 결성되었는데 3개월만에 99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파의 논리가 단순히 좌파에 안티를 거는 논리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합리적이고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겨레21 2003. 5. 22).

이러한 청년들의 보수화는 취업난 등 경제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정치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보수화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은 20대 후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미국에 대한 호감, 북한에 대한 태도, 한총련 등에 대한 입장에서 이들은 20대 후반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세대는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유롭게 자랐고 '진보적인' 선배들이 이미 졸업한 세대였다. 바로 이전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진보 이념을 전수하지 않았으며(뉴스메이커 555호 2004) 오히려 후배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호해주었다. 보학연에서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학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이념의 자유화 자신의 가치관의 커밍아웃을 표방하면서 기존 대학 및 온라인 세계의 진보적 일방주의에 반대기치를 들고 등장한 단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보학연 cafe.daum.net/conservatism). 그러나 이들 게시판을 보면 이들이 어떤 뚜렷한 신념을 갖고 출발했다기보다는 운동권 선배가 사라지고 보수화된 교정 내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갖게 한다.

(5) 기업 및 재계

기업은 시민단체는 아니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주로 이들은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보수단체의 대규모 국민대회 개최는 이들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최 비용은 한 회당 2억-3억정도라고 한다. 각 대회는 신문에 개최 광고를 낸 뒤 광고에 난 계좌를 통해 국민성금을 모금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6.25 대회 때 삼성이 1억원, 전경련이 4천만원, 대한상공회의소가 3천만원, 대한무역협회가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이전 대회에서 대회비용이 적자가 나자 당시 재정위원장 봉두완이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삼성의 이학수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¹⁹⁾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에 따르면 ‘후원한 단체들은 애국시민단체들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기업의 성공도 보장된다는 행사취지에 동감’(신동아 2003년 10월: 310-312)하여 지원하였다. 8.15 대회 때는 경제단체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허문도는 8.15 국민대회 쫓기사를 통해 “재벌기업이 좌익들의 잡지에 광고를 주어, 좌익들의 준동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말고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허문도는 “월간 말지에 포스코 등 대기업의 광고가 게재되는 걸 보라.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발행하는 매체에 그 어떤 광고도 신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신동아 2003.

19) 봉두완의 다음의 진술은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준다. “내가 상황설명을 했죠. (행사 비용이) 펑크 났는데 남들이 보면 무슨 꼴이냐고? 그래서 다른 데(기업)는 현정권 무서워서 못하니까 삼성이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OK해주더라고... 거기 있는 이학수씨(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장)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1년 선후배간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주던데 다른 기업에선 100만원도 못 주더라고.”

10: 313).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들이 단합하여 조직적으로 보수 집단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조직은 기업이다. 전경련 산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보수 이데올로기를 출판이나 강연을 통해 생산해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 강좌를 개설할 때 자금을 대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커리큘럼까지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

한국의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이념은 표현방식과 과격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보수단체의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강조는 극우단체의 반공의 다른 표현이고, 보수주의의 기업활동의 자유는 극우단체의 반노조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극우와 보수집단의 이념적 성격을 굳이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작년만 해도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슬로건을 외쳤으므로,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이들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⁰⁾ 언론의 자유,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반대 역시 자유민주

20) “하지만 최근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현저한 도전과 그 기초질서에 대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이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함...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수수방관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현정부의 작태를 준엄히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된다.²¹⁾ 또한 이들은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한다. 보수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미성조기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²²⁾ 경제 특히 시장경제 역시 이들의 중요한 이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지만, ‘안보’ 외에도 시장경제의 가치질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제’ 또한 우리 운동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자유시민연대). 이밖에 이라크 파병 환영, 북한 인권문제 강조, 북핵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고교 평준화 반대, 기업 옹호,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등은 보수, 극우를 막론하고 여전히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이슈라고 하겠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극우단체와 다르며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장수근 홍보매체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우단체와의 분리를 시도한다.

자유총연맹은 3.1절 및 6.25 대회에 참여해본 결과 당시 대회를 주도한 일부 인사 및 단체가 전현 정부를 매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대회를 정치적 행사로 변질시킴으로써 본래의 대회 취지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이념분열의 장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8.15 대회에 불참했다... 자유총연맹은 극좌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극우도 반대하는 활동노선을 견지한다... 극단적인 일부 진보 성향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양태의 격렬한 시위와 감정표출, 퍼포

의 수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시대연대 성명서)

- 21)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답게 만드는 핵심요소 중에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최근 김대중정부가 조산·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가히 친문학적인 추정세액을 부과한 것은, 그 형식적 합법성의 구비 여부를 떠나서 해당 언론기관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해 볼 때 각 언론기관의 존폐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시대연대 성명서)
- 22) 독립신문은 미국대사관과 함께 영어교육 프로그램 YES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국대사부인이 9.11 테러와 추수감사절의 칠면조요리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또한 영어공부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다(한겨레21 2004. 9. 15).

면스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러드는 몇몇 보수단체의 경직된 행동엔 결코 동조할 수 없다(신동아 2003. 10: 304-305).

보수적 정당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띈다. 보학연 대표는, 보수주의자라면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보수주의자라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보수주의에 대한 철학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cafe.daum.net/conservatism). 또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불법정치 자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시민회의는 정치권 및 경제계가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 10. 23).

수구와의 결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보여진다.

보수는 수구와 결별을 영국에서 그러했듯이 명예롭게 해야 한다...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 자연히 그들이 퇴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젊은 보수는 늙은 보수와 코드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대수구 투쟁선언을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마이웨이를 가면 그들과 결별하는 것이 된다(cafe.daum.net/conservatism).

이들 보수단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극우단체와 결별하려고 하고 입장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극우단체와의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회 내의 이해관계, 세력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이슈들이 그러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1) 시대에 대한 인식과 변화 모색

우선 보수단체들은 시대가 변화했으므로 단체의 활동과 성격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연맹은 1980년대 말 동서냉전 종식과 더불어 세기사적 데탕트 시대가 열리자 종래 반공과 안보를 통한 체제수호활동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옹호·발전 쪽으로 활동방향을 조정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오늘날 연맹은 역사발전과 사회상황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보수적 이념과 가치는 지켜 나가되 바뀌어야 할 가치는 과감히 바뀌어 나가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패러다임을 바꾸는 용기로 연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을 연맹이 선도합시다(한국자유총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겸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총재 대회사 2004. 6. 16).

국제적인 탈냉전 시기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민심의 변화도 인식한다. 특히 총선 이후 여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이것이 ‘탄핵정국의 결과이기에 앞서 지난 대선대 표출된 세대교체의 국민적 여망이 표현된 것이며 보수세력이 시대적 변화와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안주한 결과’로 진단했다(한기총 2004. 4. 22). 이제는 보수파가 단순히 좌파를 비판만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보여준다.

우파의 논리가 단순히 좌파에 안티를 거는 논리여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우파가 밀리고 있다. 우파는 국수주의, 시대흐름 인식 못하는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한국만의 우파논리를 개발, 새롭고 합리적인(젊은이들이 받아들

일 수 있는) 대안과 비전, Frame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기존 우파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자. 우리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예) 인권, 소외, 실업... 등. 우리가 말하는 우파논리는 지금 시대를 볼 때 또 하나의 대안적 진보운동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cafe.daum.net/futurekorealab).

자유총연맹은 그동안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였으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999년 3월 31일 창립 10돌을 맞아 ‘국민대화합 비전2000선언문’을 통해 지역감정, 보수혁신, 계층노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열린 마음 열린사회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당시 양순직 총재는 “그동안 자유총연맹은 친정부 관변단체로만 여겨져 온 것이 사실... 반공·안보지상주의만 내세우는 기존의 활동관행을 벗어나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시민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발언하였고 대북비료지원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물론 이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50만명이었던 회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관변단체적 성격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존립을 위해 시민단체로 위상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다(인터넷한겨레. 1999. 3. 31). 또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NGO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단체가 모였던 2003년 8.15 국민대회에 불참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한국일보 2003. 09. 01).

더 나아가 2004년 2월 13일 여성부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특별 기획단의 회의에서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새로 참석하여 동참할 뜻을 밝혔다.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보수적·권위적·남성 중심적인 단체로 비쳤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여성권의 향상과 양성평등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기획단에 참여하

게 됐다”는 것이다(인터넷 한겨레, 2004. 2. 18)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이제 새마을운동은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국민운동으로 거듭나 사회통합의 힘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운동 모토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통일 사업’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를 새마을운동의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통일사업도 추진하여 “9월 조리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10개 군에 지원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 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생소한 일이라 그런지 무조건 반대”했지만 현재 “회원 한 명이 3,000원씩 2개월만에 6억3천만원이 모일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http://newsmaker.khan.co.kr/society/n372c01.htm>).

노동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에서도 변화를 보여준다. 극우 단체의 경우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를 강조하고 복지정책을 경계한다. 이들에게 ‘노동운동은 권력화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이다(한겨레21 2003. 5. 22).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게 해준다거나 생산성이 없어도 넉넉한 소득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거나 하는 달콤함 유혹이 4,500만 전체 국민을 서서히 가난으로 몰고 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자유시민연대 취지문)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로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지워버리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연대를 구축하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다면 정부와 민담세의 관료적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투쟁이 이미 거대한 사회비극을 가져온 20세기 역사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러한 반헌법적 사회운동이 시끄럽게 펼쳐대면서 역사에 거스르고 있습니다.(헌법 개회사)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침해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

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악덕 고용주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몇몇 패스트푸드 점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연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한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 4. 1).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시민회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경제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던 노사갈등구조를 하루속히 종식되어 노사정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산업구조나 기업경쟁력이 낙후된 우리나라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채택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근무제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8.29)

물론 이것이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익향상, 노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의를 패스트푸드점 등의 연소노동자에 한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 연소노동자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개별화되어 있고 임시직이므로 시민회의가 지지해줘도 결코 조직화되지 않는 ‘안전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²³⁾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민회의는 정부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우왕좌왕하

23) 대체로 보수단체들이 지지하는 개혁에는 이같은 ‘안전함’이 주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집단은 개혁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 세력이 조직되거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는 모습을 다시 보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대응하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노사협회가 정치논리나 반시장적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여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 6. 1).

또한 보수단체들은 친일, 반공에 대해서도 비교적 변화된 태도를 보여준다.

우리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분인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정점에 위치한 친일세력들의 끈질긴 생존력... 그리고 현세계에서 전무후무하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망령(보학연 cafe.daum.net/conservatism)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역시 “친일 과거사 청산은 우리가 한번은 거쳐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제강점 하에서 강제 수용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나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작업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파고가 하나, 둘이 아니”므로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는 지침을 빠뜨리지 않는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 8. 19). 고질적인 반복적 태도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남북한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좌경이나 극우적 시위대에 열에 휘말리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끌어안는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정치적 중심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좌경 혹은 극우의 시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대정부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기총과 KNCC가 협력하여

화해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가운데..”(한기총 2004.4.23)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 북한에 생길 경제특구, 행정특구를 북한선교와 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선교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용남 목사는 발언했다(한기총 2004. 4. 23).

2) 현 체제 인정

보수단체와 극우단체가 명백히 갈리는 지점이 바로 현 체제, 현 정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가, 인정하는 가이다. 극우파의 구호는 철저히 현 정부에 대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현저히 벗어나 국정을 운영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 극우집단의 요구이다(시대연대 성명서).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현 정부 및 현 대통령의 존재를 일단 인정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뚜렷이 드러났다. 극우단체는 노무현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보수단체들은 그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정되기를 바랐다. 또한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²⁴⁾ 그러나 대다수 단체의 경우 이는 노무현과 현 정부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국면이 선거

24) “한국자유총연맹은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기각을 결정함에 대해 환영하며... 연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선고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란 점을 높이 평가하며”(한국자유총연맹 2004. 5. 14 성명서)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견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수용되어야 한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4. 5. 14)

에서 결코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견지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글들은 그러한 우려를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서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을 심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만약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다가올 대선²⁵⁾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꺾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동정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결단코 안될 일임을 첨언한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 3. 9)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통해 사태가 오늘에 이르도록 한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4. 3. 15).

3) 국민 통합과 다양성 강조

보수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고 진보파와 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극우집단과 다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²⁶⁾

자유총연맹은 “건강하고 개혁적인 진보와도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과 반목으로 패인 골을 화합과 상생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매우자고 주장한다(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겸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총대 대

25) 총선을 잘못 표기한 듯함.

26) 극우단체는 안티김대중과 안티호남 등 지역색도 강하게 드러낸다. 5.18을 북괴의 선동에 의한 폭동 또는 광주 양아치들만의 잔치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한겨레21 2003. 5. 22).

회사 2004. 6. 16). 한기총 역시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는 국민 화합이 필요하며 교회가 중간자적 입장이 아닌 성경적 시각으로 진보와 보수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미래지향적 국민화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조심스런 변화를 보여준다. “좌우를 초월하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최근 주류로 등장한 진보세력을 일방적으로 반기독교로 매도하기보다는 세대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4. 4. 22).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기 중심의 비판을 그치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면서 “정파와 계층과 세대와 지역과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집단적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서로 국민화합을 이루어냅시다”라고 주장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3. 4. 3). 보학연 역시 “지금의 보수와 진보간 대립구도가 우리가 바라던 청년 보수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그만두기를 청년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결은 급진주의의 젓줄이고 극우의 젓줄이지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온건한 보수 진보의 젓줄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⁷⁾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학연은 자신의

27) “이제 투쟁을 원하는 늙은 수구와 코드를 맞추는 것은 그만 두었으면 한다... 진보가 광화문에서 시위한다고 우리는 시청에서 시위한다는 식의 세싸움은 50년대의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대화하자!!” 보학연은 보수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3.1 행사, 4.19 행사에 불참했는데, 그 이유를 진보-보수 대립구도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일 진보와 보수의 합동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참석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학연은 맹목적인 우파를 지향하기보다는 생각 있고 대화가 되는 진보와 대화를 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저번에 한총련 반대카페에서 보학연에 연대를 요청해 왔을 때 운영자는 한총련 반대 연대에 가입할 의사가 없을 밝혔습니다. 보학연의 기본적 모토는 세력 대립과 전투가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총련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한총련이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강령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한총련 합법화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기본입장을 ‘현실주의적 다원주의’로 표방한다.²⁸⁾ 자신들이 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 역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것이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학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이념의 자유화 자신의 가치관의 커밍아웃을 표방하면서 기존 대학 및 온라인 세계의 진보적 일방주의에 반대기치를 들고 등장한 단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²⁹⁾

4) 북한에 대한 태도

그동안 보수극우단체의 주요 이념은 반공이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슬로건은 ‘반북반핵’으로 김대중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해왔다. 이들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결성하게 된 계기도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적대세력에게 양보와 선의를 보이면 평화가 온다는 논리와 주장은 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자유시민연대 취지문)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정부의 친북적 성격”이다.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흐려진 안보의식과 북한의 대남전술에의 무분별한 동조현상 나아가 좌익친북세력에 관대해진 사회의식뿐”이라는 것이다(시대연대 성명서). 특히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은 월간조선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회창 총재가 ‘정부 여당의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조차 맹렬히 비난한다.

28) “우리는 이를 수구적 지식인들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극소수이지만 보수적 지식인들에게 젖줄을 대어야 한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29) 보학연은... 학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보수적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공간이 될 뿐 아니라... 보학연 창립을 시작으로 많은 청년 보수 단체들이 생겨났고, 더 이상 대학이 사회에서 보수적 대학생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어 외톨이가 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보학연은 언제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합니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한국의 제1제벌 현대의 정주영씨가 북한에 드나들며 김일성 부자와 밀통해서.. 명백한 이적행위였지만 이회창씨는 이를 방관만 했다... 북한은...또한 한나라당 내 친북 세력들을 사주하여 내분을 일으키도록 적극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회창 총재는 이래도 애매모호한 대북관으로 일관할 것인가(월간조선 2002. 3)

반면 보수단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맹은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세습정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 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수용·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북한 어린이와 용천역 폭발사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선 것도 그같은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연맹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평화번영'정책과 실용주의적 노선과 상통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단극복과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연맹, 50주년 2004. 6. 16)

북한의 용천 폭발사고는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보수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³⁰⁾ 또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으로 북한 농촌 현대화 및 농축산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0)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체제나 이념 차이, 절차상의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구호 방법을 찾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남북이 이번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의 아픔을 달래며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용천 폭발사고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화위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남북간에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 4. 26) “향군, 북한 용천 피해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 입원환자 6천명분 꼬리곰탕 전달키로... 향군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 엄청난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재향군인회 국내의 조직과 전회원을 동참시켜 구호품과 성금 등을 모집해 온정의 대열에 앞장서기로 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4. 4. 27)

있으며 “북한지역의 농촌소득 증대와 민족화해에 일조하는 사업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했다(2/7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 www.saemaul.com).³¹⁾

5) 국익과 민족주의 강조

강한 한국, 경쟁, 세계화는 보수와 극우단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극우단체의 경우 그들의 목표는 “강한 한국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리하여 통일한국의 앞날을 기약하자는 것”이다(자유시민연대, www.freectzn.org/about/sub4.asp).³²⁾ 경쟁 역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와 역경이 근본적으로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수호, 창당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쟁혐오의 낡은 생각과 불공정한 이권추구의 타성에 빠지거나, 이를 옹호하여 온 잘못이 있다. (헌변 창립취지문)

극우주의자들은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더불어 애국가는 4절까지 제창하며 더 나아가 ‘멸공의 횃불’, ‘전우여 잘자라’ 등 군가를 주로 부른다. 자신들을 애국운동, 북한동포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자평한다(신동아 2003.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적 입장을 가져, “미 제국주의탄

3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다른 단체와 더불어 서해교전에 대해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2. 7. 12). 서해교전에 대한 태도 역시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차이를 보여준다.

32) “자유시민연대는 그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리의 관점의 중심에 둘 것이다. WTO 체제 이후 몰아치고 있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국익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무한경쟁의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익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자유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연합한 것일 뿐 착취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식 경제주의는 20세기의 최대의 가치”(한겨레21 2003. 5. 22)라고 주장한다. 반미는 ‘국익에 반하는 철없는 행동’으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나라’이다(한겨레21 2003. 5. 22).

그러나 보수단체의 경우 친미적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지만 극우단체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절대화나 친미를 넘어 또한, 승미적인 분위기도 보학연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학연은 미국을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이용할 것을 바래왔을 뿐, ‘감히 혈맹인 미국에게..’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학연은 한국적 보수주의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합니다. 보학연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학연의 궁극적인 가치인 한국 사회에 맞는 건전한 보수적 이념의 정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학연은 그 길을 문화 민족주의에서 찾고자 합니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는 바, 보학연 등 청년보수의 보수주의는 친미를 고수하지만 결국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주의로 수렴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바로 이 모든 보수적 갈등이 근본적으로는 민족으로 환원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영광된 역사적 과거를 복원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보수주의가 진정한 민족주의와 상통한다는 확연한 증거일 것이다... 물론 진보라고 이 민족주의 관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대개의 진보주의는 민족적 영광보다는 급속한 유토피아적인 사회개혁만을 꿈꾸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관념은 부차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깊은 근본 속의 보수주의를 고찰하며 그로 인한 행동을 정립시켜야만이 이 진정한 보수주의가 탄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로 변환되는 것이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이 카페 때문에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살해한 정
신의 면면을 이어 받은 당이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한국형 민주주의도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에게도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다고 여겨집
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라고 여겨집니다. 박정희 대
통령 시대는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연구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미래한
국연구회 cafe.daum.net/futurekorealab).

위와 같은 글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의 이념의 혼란을 보여준다.
김구에서 박정희, 민족주의에서 보수주의를 오가는 태도에서 알 수 있
듯이 이들은 나아가야 할 뚜렷한 이념적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고민하
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고 보여진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의 보수단체의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보수단체의 현황과 더불어 극우와 보수가 갈리게 된 지점과 원
인을 알아보고 보수단체의 이념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보수단체는 현재 자기 변신을 하지 않
는 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 북
한, 노동, 여성 문제 등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안
으로는, 국민 통합과 다양성 강조, 국익과 민족주의 강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의 대안에는 국가주의, 박정희에 대한 향수 등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변신을 해야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신이 진정한 변화의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보수가 아닐 것이다. 벌써 몇몇 보수단체들은 중도보수로 나아가는 듯하다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편파적 결정에 힘을 얻어 다시금 수구로 회귀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민주화, 개혁의 추진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변신-변화가 아니더라도-을 시도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월간조선』 2000년 12월 “보수는 분류, 진보는 지류, 지류가 많을수록 강물은 풍부해진다,” 2002년 7월 “행동하는 우익,” 2001년 9월 “침묵을 깬 기독교 보수교단의 반공궤기 움직임”.

『신동아』.

『주간조선』.

『한겨레신문』.

『한겨레21』.

『한국논단』.

김병국. 1999. “한국적 보수”,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_____. 2000. “우리의 과제는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 『월간조선』 12월호.

김상철. 2000. “자유가 있는 곳에서 왜 진실이 통하지 않는가”, 『월간조선』 12월호.

김용민. 1999.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발전”,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김용서. 2000. “민중사관은 있어도 국가사관은 없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까”, 『월간조선』 12월호.

노엄 촘스키. 장명준 역. 2001. 『불량 국가』, 두레.

- 박근. 2000. “미·일과의 유대는 우리의 행복번영과 직결”, 『월간조선』 12월호.
- _____. 2002. 『한국이 보수여, 일어나라』, 월간조선사.
-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학교출판부.
- 서병훈. 1999. “한국 보수주의의 성격과 발전 방향”,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 손혁재. 1997. “이회창/어떤 신보수주의자의 엘리트주의와 귀족정치학”, 『보수주의자들』, 삼인.
- 앤소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역. 1998.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 여영무. 2000. “낮은 단계의 연방안은 고려연방제로 가는 속임수”, 『월간조선』 12월호.
- 윌리엄 허버. 정연식 역. 1994. 『보수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경북대학교출판부.
- 유석준. 2000. “전통으로부터 미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찾아낸다”, 『월간조선』 12월.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_____.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평화연구』 11권 1호 2002/2003 겨울호.
- 이봉희. 1996. 『보수주의』, 민음사.
- 임광규. 2000.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치는 것이 보수주의”, 『월간조선』 12월호.
- 임마뉴엘 윌러스틴.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당대.
- 전영기. 1997. “조갑제/ 일본의 개혁적 무사 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삼인.
-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 정병준. 2001.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상호. 2002. “한국의 관변단체 연구”, <http://www.ngo.hanyang.ac.kr/m02/tmp/cgi-lib.22836.1.d/20021001.pdf>
- _____. 2004. “한국 시민운동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 『한국 NGO 리포트』, 한양대학교출판부.
- 조현연. 1997. “김종필/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 『보수주의자들』, 삼

인.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토크빌. 임효선·박지동 역. 1986.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피터 비레크. 김태수 역. 1981.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태창문화사.

Burke, E, 1955.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New York: The Liberal Arts Press.

Mill, J.S., 1951. *Utilitarianism, Libert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New York: E.P. Dutton and Company, Inc.

Nisbet, Robert. 1986. *Conservatism: Dream and Real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대한민국재향군인회 www.korva.or.kr

미래한국연구회 cafe.daum.net/futurekorealab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www.cubs-korea.org

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새마을운동중앙회 www.saemaul.com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생연대 www.withcitizen.dawa.to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cck.or.kr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K C I